원전 균열 부실용접 질타에 "부품 가방에 넣고 와 몰랐다"

22일 국정감사를 위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를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이 전망대에서 김원동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장으로부터 원전 시설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 산업위, 영광 한빛원전 현장국감

"위조 여부 검증 시스템 왜 없냐" 추궁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방안 마련하겠다"

2일 영광군 홍농읍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빛원전)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빛원전 현장시찰에서 의원들은 한빛 2호기의 부실정비와 원전 비리에 대한 고강도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에는 원전 수주를 위해 핀란드로 해외 출장 중인 조석 한수원 사장을 대신해 전용갑 한수원 부사장과 김원동 한빛원전 본부장 등 원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빛 2호기 부실정비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장 엔지니어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품과 재료가 달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은 문제가 결국 원전 가동 정지를 낳은 만큼, 차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이 한빛 2호기 수실 균열 보수작업 중 두산중공업 관계자가 어떻게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들여올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이 "(용접재질) 소량을 가방에 넣어왔고, 시간이 밤 12시라 검사가 소홀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빛 2호기 부실 정비가 충격적인 이유는, 원전 비리 후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본부장의 답변 태도가 충격이다. 그럼 가방은 열지 못하고, 밤 12시는 잠을 자는 시간이라 그냥 넘어간 것이냐"고 따졌다.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김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용접성이 더 좋은 재질로 용접했다'는 부분은 두산중공업의 불법적인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문장"이라고 지적하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은 지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빛 2호기의 정지에 대해 수리업체인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용갑 부사장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답변했다.

한수원의 내부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 기관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왜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냐"며 "이것은 발주자와 업체가 장기간 유착되면서 생긴 '스톡홀롬 신드롬'과 같다"며 비난했다.

스톡홀롬 신드롬은 인질이 범인에게 동화돼 동조하는 비정상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도 "조직이 똘똘 뭉친 '순혈주의'에 함몰된 한수원이 원전 발전과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사전에 관리 감독이 미흡한데 대해 자괴심을 느끼고 있다"며 "본부뿐 아니라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민주 "이젠, 총체적 부정선거 문제 고민할 때"

국정원·보훈처·군 의혹에 "대선 승복 다시 생각"

정통성 공방 비화 가능성 … 새누리당 "정치 공세"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지난주 국감 시작을 계기로 일견 정상화하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게시 등 추가 의혹에 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전날 '수사 외압' 폭로 발언까지 나오자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국정원장·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일부 중진들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승복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현 정부의 정통성 공방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보훈처·군의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선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란 말이냐"며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불복으로 비쳐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마저 "이 사안의 본질은 유례없는 선거 부정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당내에는 강경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파장 차단에 나섰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조차 부인하는 법외(法外)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국정원장 등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툭하면 대통령 사과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못된 버릇으로, 국민이 그러한 행태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한풀이가 더 거세져 민생·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면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사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 박대통령 긴 침묵

靑 "경제활성화 전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해 22일에도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 등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긴 침묵'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국감 역시 국회의 소관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 사태'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희망대로 박 대통령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이고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일도 없다.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 의혹이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수사 방해 의혹이 나오는 등 현 정부인사들로 공세의 타깃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저했던 '대선 불복'이란 말까지 꺼내들고 있다. '대선 불복'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자체가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와 대야 관계 등 내치에서는 '빈곤'했다는 그동안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겨울방학에 무안에서 떠나는 동남아여행(방콕,싱가폴)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특급호텔 숙박
기간 2014,1/04~2/22 (매주토요일출발)
무안 – 상해/싱가폴 5일 1,359,000
무안 – 상해/방콕,파타야 5일 1,050,000
※불포함:현지가이드,기사팁,여권및 개인경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가을여행은 일본 규슈 온천 여행

강추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10/30, 11/2, 8, 10, 17, 23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팁
최소출발8명부터가능/주말요금별도문의

강추 전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항공 499,000
출발일 10/30, 11/2, 8, 10, 17, 23
※불포함 사항 :TAX, 유류할증료,기사가이드팁 ,국내수송비
※특급호텔 2박인 경우 1인당100,000원추가
최소출발8명부터 가능

강추 내맘대로 자유투어
199,000~
※포함:왕복선박비,호텔2박

오사카,교토 와카야마
특급호텔 규슈 3박4일
항공 799,000

겨울방학 따뜻한 일본 남쪽 오끼나와
실속 오끼나와 3박4일 1인당 899,000
고품격 오끼나와 2박3일 1인당 699,000
기간 1/09,16,23 /2/06.13.20
※불포함 :유류할증료,현지기사가이드팁,여권및 개인경비

무안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무안–상해/항주/소주 4일 449,000~
무안–상해/서안 4일 739,000~
무안–상해/정주 4일 839,000~
무안–상해/곤명 5일 919,000~
무안–상해/귀양 5일 1,049,000~
※불포함사항 : 유류세(₩99,000), 단체비자(₩25,000), 기사/가이드 팁($10/1박)

무안–베트남 캄보디아 전세기
겨울방학 세계가 안정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절경과 찬란한 역사와의 만남!!
(12/27~1/21, 단 6회) ※건교부 인가 조건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준특급 1,299,000
※불포함:개인경비,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

겨울방학때 무안공항 떠나는 캄보디아(씨엠립)직항!! BBC선정죽기 전에꼭 가봐야할곳
무안– 캄보디아 (씨엠립직항)
기간2014,1/01~2/26 (매주수요일,토요일 출발)
3박4일 599,000 3박5일 9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40), 싱글차지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장사/장가계 5일 899,000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 1,069,000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팁

겨울방학 미동부 IVY LEAGUE 명문대 탐방!!
IVY LEAGUE에서의 체험~!! 꿈과 희망의 시간!!!!
출발일 : 1/13일 선착순 : 30명
미동부 아이비리그 9일 3,790,000~
※특 전 : 자국기이용(ke/oz), 유명강사의 직접강의, 현지학생에게 듣는 IVY LEAGUE
미국 주요도시 TOUR, 전문인솔자동행
※불포함 : 항공TAX, 유류할증료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포함사항 :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